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3년 제71호
2023.08.31.(목)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미국·중국】美 '중국 신장 강제노동' 수입 검사 전기차 부품으로 확대

【미국·중국】美, 中 기업 27개 '잠정적 수출통제 명단'서 제외

【베트남】베트남, 제조기업 대상 환경부담금 도입 추진

주요 산업별 이슈

【식품】인도, 쌀·양파에 이어 설탕까지 수출금지 검토

【전기차】인도, 테슬라 위해 전기차 관세 15%까지 인하 전망

【반도체】폭스바겐, 반도체 확보 위해 제조사와 직접 구매계약

주간 이슈 포커스

【EU, 환경】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령 발표(8.17)

원자재 뉴스 PLUS

【8.4주 원자재 동향】리튬 가격 장기적 하향 안정화 전망 배터리 업계 긍정적 영향



공급망 더 알아보기

KOTRA,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미국 前 국방부 안보차관보 인터뷰



공급망 소식통

KOTRA, 2023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GBPP 2023) 설명회 안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미국·중국

美 '중국 신장 강제노동' 수입 검사 전기차 부품으로 확대

- 미국 정부는 중국 신장(新疆) 지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 제품 검사를 전기차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
 - 8.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리튬이온 배터리, 타이어, 알루미늄, 강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압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
 - '23.2월 이후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에 따라 31개의 자동차·항공우주 제품이 압류됐으며, 알루미늄과 강철에 대한 압류액은 작년 말 월 100만 달러(약 13억 4천만 원)에서 최근 1,500만 달러(약 200억 원) 이상으로 증가

*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은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중국 신장 지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만 미국 수입이 가능함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지난 4~6월 사이 전기차 배터리, 타이어, 알루미늄 등을 관련 목록에 추가한 바 있으며, 미 당국의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
 - '22.12월 공개된 영국 셰필드 할람대의 연구는 자동차 업체 대부분이 신장 지역 강제 노동 생산 제품에 노출됐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미국 당국이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출처: 로이터통신('23.08.20), 연합뉴스('23.08.2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미국·중국

美, 中 기업 27개 '잠정적 수출통제 명단'서 제외

- 8.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美 상무부가 27개 중국 기업·단체의 이름을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수출 통제 우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

* 미검증 명단은 수출통제 블랙리스트 전 단계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중에는 리튬 배터리용 소재 등을 생산하는 화학기업 광동광화과학기술과 센서 제조업체 난징 가오화과학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최종 소비자와 관련한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밝힘
 - 이번 발표는 지나 러먼도 美 상무부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러먼도 장관은 8.27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상하이로 방문해 반도체와 광물 규제 현안 등을 논의할 전망
 - 8.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먼도 美 상무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美 상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수출통제 시행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시작하고, 무역 문제를 다룰 새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

출처: 블룸버그('23.08.22), 연합뉴스('23.08.2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베트남

베트남, 제조기업 대상 환경부담금 도입 추진

- 8.16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재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 개선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 기업 등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보도
- » 대상 분야는 철강, 무기화학, 무기비료, 정유, 폐기물 재활용,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사 등이며, 해당 분야의 기업들은 분기별로 총미세먼지(TSP)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등 4개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당국에 신고 필요
- » 또한, 연 300만 동(약 16만원)의 고정부담금과 별도로 배출량에 따른 500~800동/톤(약 20~40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할 예정
- 베트남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함
- » 베트남 당국은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기업 11만여 곳에서 연간 1조 2천억 동(약 656억 원)의 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

출처: 블룸버그('23.08.22), 연합뉴스('23.08.2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식품

인도, 쌀·양파에 이어 설탕까지 수출금지 검토

- 8.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 주요 관계자는 “가뭄으로 사탕수수 수확량이 감소한 가운데 국내 설탕 공급과 에탄올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10월부터* 설탕 수출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힘
- * 인도 정부는 '22.5월부터 설탕 수출량을 연 1천만 톤에서 8백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23.10월부터는 설탕 수출을 아예 금지할 계획
- » 인도가 설탕 수출을 금지하게 된 배경은 사탕수수 주요 산지인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와 카르나타카주의 올해 강우량이 예년 절반에 그치면서 가뭄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임
-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사탕수수를 활용해 에탄올을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23년 5천만 톤의 설탕을 에탄올로 전환하고, '25년까지 연간 6천만 톤의 설탕을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용할 방침
- 또한, 인도는 싸라기(부스러진 쌀알)와 비(非)바스마티 백미에 이어 찌쌀, 바스마티 등 쌀과 양파까지 수출규제에 나서는 등 인도 자국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식품 인플레이션 우려 목소리 존재
- » 8.25일(현지시간) 인도 재무부는 10.15일까지 찌쌀에 20%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고시했으며, 이어 8.27일 현지 언론은 인도 상무부가 바스마티 쌀을 \$1,200/톤(약 160만원) 이하로 수출하지 말 것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고 보도
- » 또한, 8.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인도 재무부가 자국 양파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말까지 수출되는 양파에 4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출처: 조선비즈('23.08.24), 한국경제('23.08.27)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전기차

인도, 테슬라 위해 전기차 관세 15%까지 인하 전망

- 8.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위해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15%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
- 인도 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미 당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받고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인도는 테슬라의 공장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어 인도 현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전기차 업체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
- * 인도의 현행 자동차 관세는 4만 달러 이상 고가 제품은 100%, 나머지는 70%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일괄적으로 15%까지 인하할 전망
- 관세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나, 인도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는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음
- 테슬라가 장차 인도 내에서 만드는 모델뿐 아니라 테슬라의 모든 제품을 인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팔 수 있게 되나 인도 전기차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어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기까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출처: 로이터통신('23.08.23), 연합뉴스('23.08.27) 언론보도 KOTRA 종합

반도체

폭스바겐, 반도체 확보 위해 제조사와 직접 구매계약

- 8.23일(현지시간) 독일 폭스바겐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Infineon, Nxp, Renesas 등 10개의 반도체 제조사와 직접 구매 발표
- 기존에는 부품 공급업체를 통해 반도체를 수급했으나, '22.10월부터 반도체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공급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생산 확대, 차량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 내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 * 현재 글로벌 자동차 조달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은 470억 달러(약 63조 원) 규모로 주요 구매자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30년에는 약 1,470억 달러(약 194조 원)에 달하여 주요 구매자 3위 달성 전망
- 앞서, '23.7월에는 유럽 반도체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신규 반도체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
- 향후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가 대만 TSMC와 미국 인텔 등 반도체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할지 귀추 주목
- TSMC와 인텔은 독일 내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폭스바겐은 아직 TSMC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주기적으로 반도체 수요현황을 공유할 계획

독일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계획

- (TSMC) 독일 드레스덴에 100억 유로 규모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8.8일), '27년부 생산 목표
- (인텔) 독일에 30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설비 투자 계획 발표('23.6월)
- 독일 올라프 솔츠 총리는 반도체 생산력 강화를 위해 '27년까지 200억 유로 지원계획 발표(7.24일), 반도체 제조시설 지원 보조금을 통해 TSMC, 인텔 지원 전망

출처: 로이터통신('23.08.23), Auto News Europe('23.08.23)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EU, 환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령 발표(8.1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령 개요

8.17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CBAM 전환기 중 보고의무 이행사항 첫 번째 시행령 채택

» 6.13일(현지시간) 발표한 초안 대비 공정별 배출량 산정 기준* 외 큰 변동사항 없음

*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공정이 투입되는 경우, 기존 '투입된 모든 생산공정에 대한 가중평균'을 산정하는 것에서 '생산공정별 내재 배출량(calculated separately for each production route)'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령 주요 내용

보고 항목	▶ 제품정보, 신고자·책임자·수입자 정보, 원산지 국가, 기지불 탄소 가격, 탄소배출 정보 등
보고 절차	▶ 수입신고자가 전환기('23.10월~'25.12월)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CBAM 전환기 등록소 제출 - 제출된 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2개월 내 수정이 가능하며, 3번째 분기별 보고서 제출 마감 전 앞서 제출한 1~2번째 보고서* 수정 가능 * 첫 번째 보고서는 '24.1.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역내 세관 대리인 지정 시 해당 대리인이 제출해야 함
탄소 배출량 산정	▶ 시스템 경계 범위, 공정별 배출 산정 기준 및 전구체 여부, 배출계수 등 제품의 배출량 세부 산정방식을 설정해야 하며, '24년 말까지 제3국 산정방식도 한시적 허용 * 동일 제조시설에서 여러 생산공정이 이루어질 경우, 공정별 배출량 별도 산정 필요 〈역외 산정방식 인정〉 ① 제조시설 소재국 내 탄소 가격 제도 또는 의무적 배출 모니터링 제도 ② 제조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체계 (단,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 필요) ▶ 실질 배출 관련 정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24.7.31일까지 내재 배출량 산정을 위한 대체 기준 적용 가능 ▶ 복합재의 경우, 품목 전체 배출량의 20%까지 생산자가 제공하는 추정치로 보고 가능
평가 및 제재	▶ EU 집행위 보고 준수 여부 사전 평가 → 회원국 관할 당국에 평가 결과 전달 → 관할당국 최종 평가(3개월) 후 시정 조치 시행 ▶ 의무 미준수 시 전환기간 동안 내재된 배출량 톤당 10~50 유로 벌금 부과 예정 * 회원국별 벌금 수준을 결정하며,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인상 예정. 보고 미준수 기간 6개월 초과 또는 부정확한 보고 2회 연속 제출 시 더 높은 벌금 부과
시스템 운영	▶ CBAM 전환기 등록소 내 신고자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알림을 수신할 수 있는 '트레이드 포털' 개설 예정 * 전환기 등록소 내 CBAM 데이터 보존 기한은 제출일 기준 5년으로 설정 ▶ '23.9~10월 CBAM 웨비나를 개최하여 적용 대상 품목별 규정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Q&A 세션 마련 - [웨비나 일정] 📧 참가신청 링크 (바로가기) (시멘트) '23.9.15일(참가 등록: 8.21일), (알루미늄) '23.9.21일(참가 등록: 9.4일), (비료) '23.9.26일(참가 등록: 9.7일), (전력) '23.9.28일(참가 등록: 9.11일), (수소) '23.10.3일(참가 등록: 9.14일), (철강) '23.10.5일(참가 등록: 9.18일)

향후 일정

본격 시행일('26.1월) 전까지 위임법 및 시행법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규제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

출처: KOTRA 브뤼셀무역관 EU 주간브리핑 94호('23.08.23)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리튬

리튬 가격 장기적 하향 안정화 전망 배터리 업계 긍정적 영향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높은 가격 변동 폭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출처: SNE리서치('23.08.28), 매일신문('23.08.28)]

- SNE리서치에 따르면, 탄산리튬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28년 리튬 가격은 13만 위안/톤(약 2,800만원)까지 떨어지며 하향 안정세 유지 전망
-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기업은 판가연동제를 적용하여 공급망이 안정되면 가격의 등락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리스크 최소화 가능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8월 4주)

◆ [철강] 中 확장적 통화정책 및 견고한 철강수요 전망으로 상승세

품목	연평균 (US\$/톤)			주간평균 (US\$/톤)		
	'22	'23.7월말	전년대비(%)	8.3주	8.4주	전주대비(%)
연료탄	348.65	194.38	△44.2%	156.00	160.52	2.9%
원료탄	364.99	284.69	△22.0%	257.00	259.45	1.0%
철광석	120.26	116.55	△3.1%	105.50	113.85	7.9%

* 자료원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량)

- (연료탄) 8.4주 국제유가(WTI)는 \$79.83/배럴로 전주 대비 1.8%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료탄은 계절성 수요 확대로 3주 연속 가격 상승으로 \$160/톤 상회
- (원료탄) 일일가격은 \$150/톤 후반~\$160 초반선에서 박스권 횡보 시현
- (철광석) 최근 中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및 철강 수요의 완만한 회복세 전망으로 철광석 가격상승압력 발생

* 메이저 BHP사는 中 철강생산이 5년 연속 10억 톤 규모로 전망, 주택건설 이외 부문에서 철강재 수요가 견고하다고 분석

◆ [비철금속] 광종별 수급 차질 우려에 따른 상승세

품목	연평균 (US\$/톤)			주간평균 (US\$/톤)		
	'22	'23.7월말	전년대비(%)	8.3주	8.4주	전주대비(%)
동	8,797	8,667	△1.5%	8,178	8,340	2.0%
니켈	25,605	23,759	△7.2%	19,827	20,418	3.0%
아연	3,478	2,772	△20.3%	2,305	2,335	1.3%

* 자료원: LME

- (동) 칠레 하원은 동 생산부진 지속을 이유로 8.23일 국영기업 Codelco社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하는 등 공급차질 우려로 가격상승세

* 칠레의 '22년 동 생산량은 전년대비 10% 감소로 25년 내 최저치, 금년 생산량도 기음 지속에 따른 용수부족, 품위저하 문제로 부진 전망

- (니켈) 인니 정부의 자국내 불법 채굴행위 조사로 국영 PT Antam社의 주요 니켈광산 조업중단 및 에너지자원부의 신규 니켈 생산 쿼터 발급 중단으로 인한 광산 생산차질 우려

* LME 니켈 재고량은 8.4주 기준 36,996톤으로 전주대비 0.3%↓, 연초 대비 32.9%↓

◆ [석유금속]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세 지속

품목	연평균 (US\$/톤)			주간평균 (US\$/톤)		
	'22	'23.7월말	전년대비(%)	8.3주	8.4주	전주대비(%)
탄산리튬	72,290	45,269	△37.4	32,092	29,784	△7.2
수산화리튬	67,180	47,342	△29.5	29,866	27,128	△9.2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80,494	309,608	△18.6	327,900	335,900	2.4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133,607	84,489	△36.8	68,200	69,680	2.2

* 자료원 탄산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다수 구매업체가 재고 확보를 고려하는 시점으로 주요 생산 업체들은 추가 판매가격 하락 거부
- (수산화리튬) 中 내수가는 삼원계 양극재 업체의 수요 감소로 인한 하락세로, 일부 생산업체들은 탄산리튬으로 생산라인 변경 검토 중
- (희토류) 영구자석 등 주요 수요분야의 수요가 여전히 적은 상황이나, 유통업체의 재고 확보 수요와 제한된 공급물량으로 가격 상승

◆ [에너지] 中 경제지표 약화, 美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하락세
<국제 유가 동향>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2	'23.8월	등락폭	8.3주	8.4주	등락폭
두바이유	96.41	79.86	-16.55	86.23	85.78	-0.45
브렌트유	99.04	80.46	-18.58	84.69	83.77	-0.93
WTI	94.33	75.62	-18.71	80.90	79.75	-1.15

* 자료원: 한국가스공사 페트로넷 주간 국제유가동향

- 中 경제지표 부진 및 美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하락
- 中 석유 수요 감소 우려, 美 제품 재고 증가 등 하락요인으로 작용
- 이란 석유공급 증가 및 美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검토 소식 등 하락 요인으로 작용

<액화천연가스 가격 동향>

품목	'22.7월	'23.1월	'23.6월	'23.7월	전월대비	전년대비
두바이유 (US\$/톤)	1,032.50	1,298.56	687.71	619.94	-67.77 (△9.85%)	-412.56 (△39.96%)

*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더 알아보기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미국 前 국방부 안보차관보 인터뷰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KOTRA 워싱턴무역관 코인시('23.06.26)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경제 안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미국 前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의 인터뷰를 통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국 기업의 기회 및 위협 요인을 함께 살펴보자. (☞ [인터뷰 영상 바로가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 인터뷰 현장 사진 〉

▶ Q1)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이슈 관련, 경제적 안보와 국가 안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과 경제,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경제 안보의 개념을 특정한 사안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로 인식해왔으나, 이제는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항만 등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및 무역 문제에 정통한 국가 안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Q2) 미국의 경제 안보 방향에 관한 견해를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경제 전략은 이익을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화에 의존하면서 비우호적인 공급자나 거래 관계에서 취약성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세계화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간극을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의 무역 파트너 중 일부는 이러한 미국의 경제 안보 행위가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우려국의 경제-국가안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Q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보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복원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 미국은 '24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입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급망 다양화와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등 조치가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IPEF가 그것을 위한 잠재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CPTPP와 유사한 관점에서 우리의 파트너 국가가 원하는 것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파트너 국가가 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동맹관계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 중국의 공급망 지배에 따른 한미 대응 전략

- ▶ Q1)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 이익 확보, 인권 보호, 중국과 공정한 경쟁 추구,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협력 과정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접근 방식은 무엇입니까?
 - **인권 보호** 측면에서 중국 신장의 강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제 노동 제한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인권을 지키는 행위가 우리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측면에서 중국은 탄소 최대 배출국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위해 중국을 설득하거나 협상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조치가 자국의 이익과도 상통함을 알아야 합니다.
- ▶ Q2) 중국의 핵심 광물에 대한 독점지배력은 미중 지정학적 경쟁 심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보는 왜 중요하며, 글로벌 탈탄소화와 국제 안보 관점에서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핵심 광물 확보는 모든 과정의 기초가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광물이 있다면 우리는 경제적 안보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분야를 세분화하여 중국이 광물 생산에 얼마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 10월 7일 행해진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생각해보면, 중국은 여전히 패키징과 테스트 분야에서 공급망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최근 미국이 파트너 국가와 공급망을 견고히 하기 위한 시도로 호주, 일본과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혁신적인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잠재적인 단절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핵심 광물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 Q3) 한국, 미국, 중국 3국의 관계와 관련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미국이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통해 배운 것은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중국과 하는 사업이 단기적으로 이익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군-민간 융합 전략**은 겉보기에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무역 관계가 **실제 군사적으로 활용 및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히 우려됩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때로는 적절한 규제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닌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회사가 어느 시점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 » (소속) 미중경제안보심의위 비상근위원(’22.1월~), 싱크탱크 Project 2049 이사회 이장(’20.1월~)
- » (이력) 미국 前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18.1월~’19.12월)
- » (특징) ’08년에 싱크탱크 2049를 직접 설립했으며, 중국 및 북한 등 안보 이슈 전문가로 꼽힘



공급망 소식통

2023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GBPP 2023) 설명회 안내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KOTRA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Global Bio & Pharma Plaza(GBPP) 2023」를 개최합니다. GBPP 2023에는 제약바이오 분야 ① 해외 시장진출 전략 및 국가별 의약품 등록제도 설명회, ② 글로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수요 세미나, ③ 백신·바이오 글로벌 공급 생태계 구축 컨퍼런스가 세션별로 개최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GBPP 2023 설명회 행사 개요

- » 행사명 :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Global Bio & Pharma Plaza 2023) 설명회
- » 일자 : '23.9.14(목) ~ 9.15(금)
- » 장소 : 롯데호텔월드 3F 에메랄드룸 등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 » 분야 : 원료·완제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백신 등 의약품 전반
- » 대상 : 해외시장 수출 및 글로벌 협력 관심 국내기업 100여 개사
-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KPTA)
- » 프로그램 : ① 해외 시장진출 전략 및 국가별 의약품 등록제도 설명회
② 해외 투자 M&A 지원 및 매물 설명회
③ 글로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세션
④ 백신·바이오·원부자재 글로벌 공급 생태계 구축 컨퍼런스

설명회 신청 개요

- » 신청 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제약·바이오 분야 국내기업
- » 신청 기간 : '23.8.24(목) ~ 9.5(화)
- » 참가 비용 : 무료
- » 신청 방법 : KOTRA 무역투자24 공고문 내 기재된 온라인 링크 통하여 신청
 -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후 “사업신청” 탭 클릭
 - ② 검색창에 “GBPP” 검색 - “설명회” 확인
 - ③ 사업내용 확인 후, 공고문 하단의 “링크” 클릭([바로가기](#))
 - ④ 신청자 개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기업별 최대 3인)
- » 유의 사항 : 참가신청 시 KOTRA 웹사이트 게시물 내 설문링크를 통해 신청 (세부 정보 별도 안내)
- » 관련 문의 : KOTRA 바이오의료팀 (me_hq@kotra.or.kr / 02-3460-7626, 7621)

글로벌 경제지표 (23.08.29.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1말	'22.말	'23.7말	8/25	8/28	8/29	전일비	22말비
₩/US\$	1,188.80	1,264.50	1,274.60	1,325.20	1,323.40	1,321.90	△0.11%	4.54%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272.10	1,321.10	1,321.10	1,320.40	△0.05%	4.35%
₩/CNY	186.51	181.44	178.33	183.29	181.39	181.37	△0.01%	△0.04%
₩/¥100	1,032.48	945.56	899.76	907.42	904.33	902.94	△0.15%	△4.51%
Y/US\$	115.14	133.73	141.66	146.04	146.34	146.40	0.04%	9.47%
US\$/EUR	1.1318	1.0617	1.1010	1.0788	1.0814	1.0817	0.03%	1.88%
CNY/US\$	6.3681	6.9630	7.1466	7.2864	7.2881	7.2890	0.01%	4.68%

* 22년 평균 환율: (₩/US\$)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S\$) 1297.3 (₩/¥100) 949.3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8.28(전일)	'23.8.29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86.29	86.09	△0.2	14.3	7.3
						△0.2%	19.9%	9.3%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13.95	114.05	0.1	34.6	△3.3
						0.1%	43.5%	△2.8%
비철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381.50	8,375.00	△6.5	1375.0	△12.0
						△0.1%	19.6%	△0.1%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124.00	2,116.50	△7.5	36.5	△244.0
						△0.4%	1.8%	△10.3%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0,900.00	20,355.00	△545.0	1255.0	△10070.0
						△2.6%	6.6%	△33.1%

반도체

	'21	'22	'23.5월	'23.6월	'23.7월	8/24	8/25	8/28	8월(~28)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58	1.51	1.49	1.46	1.45	1.45	1.46
(%, YoY)	29.9%	△23.0%	△53.9%	△55.2%	△52.1%	△42.9%	△42.6%	△42.5%	△47.2%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9	6.33	6.31	6.31	6.30	6.30	6.32
(%, YoY)	14.7%	10.7%	△22.6%	△20.9%	△7.7%	△4.0%	△4.2%	△4.2%	△3.8%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8.4	8.11	8.18	8.25	전주비(8.18)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1039.32	1043.54	1031	1013.78	△1.7%	△8.5%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8.22	8.23	8.24	8.25	8.29	전일비(8.25)	'22년말비
BDI	2217	1515	1194	1151	1110	1080	1107	2.5%	△26.9%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moaform.com/q/lflGnB>



피드백하러 가기
<https://moaform.com/q/MvDmch>

주관기관



협력기관

